

- 2001 6월 연분홍 첫 번째 출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 2002 9월 연분홍 두 번째 출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 2003 9월 민족예술대동국  
10월 연분홍 세 번째 출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 2004 4월 광주 영암 왕인축제 축하공연  
9월 연분홍 네 번째 출판(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 2005 5월 전남 완도 장보고축제 개막공연  
10월 연분홍 다섯 번째 출판 "공소를 찾아서"(부산민주공원 소극장,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11월 북관대첩비 국중대회 축하공연 (서울 정복궁)
- 2006 5월 세계생명문화포럼 정기 2006 축하공연, 금정산 생명축전 축하공연(부산 금정산)  
9월 연분홍 여섯 번째 출판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실학축전 2006 축하공연(경기도 남양주 다산유적지)  
민족미학연구소 탈것 축하공연(부산 민주공원)
- 2007 6월 연분홍 현대춤 공연 "시선의 재발견"(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8월 바다마당극제 축하공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특설무대)
- 2008 6월 2008 연분홍 "품다, 풀다"(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 2009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집중육성 단체 지정  
8월 목포우수마당극제전 참가  
10월, 연분홍 춤꾼열전 "강희정, 조희정"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12월, 연분홍 춤 프로젝트Ⅰ "춤에서 길을 찾다" (부산 문화회관 소극장)  
12월, 연분홍 춤 프로젝트Ⅱ "확장ver. 춤에서 길을 찾다 with 백철호"(부산민주공원 소극장)  
12월, 2009 연분홍 춤 프로젝트Ⅲ "임현미의 춤"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연분홍은 춤으로 만난 뜨거운 가슴입니다.

연분홍은 2001년 부산지역의 젊은 춤꾼들을 중심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연분홍은 순수하게 춤을 사랑하고 춤추기를 열망하는 춤꾼들이 형식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춤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정기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연분홍에서는 젊은 춤꾼들이 자신의 개성과 창작세계를 마음껏 드러내는 실험적인 출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상 모든 것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기회로 삼아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서를 춤으로 구현해오고 있습니다.

연분홍은 서울, 목포 등 타 지역과의 활발한 공연 및 교류를 통해 한국 현대춤의 새로운 무게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TAFF

대본 최찬열 연출 김미현(동아방송예술대 연극과 교수) 조명감독 이동진  
무대미술 황지선 (무대미술가) 사진 이장수 홍보 / 영상 김경희 광고디자인 구세은(페이퍼민티)  
무대감독 이주영 진행 안주현 음향 김태경 기획 연행기획 面-얼굴(대표: 김경희)

주최 / 주관 춤패 연분홍 010-2434-4466

후원 부산문화재단, (사)부산민예총, 부산민예총 총위원회

문의 010-2434-4466

본 공연은 부산문화재단의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올리는 공연입니다.

010 연분홍 젊은 춤 작가 육성 프로젝트 I

조희정의

# 막걸나 멍하니 거나

5.19 (수) preview 8:00pm

5.20 (목) 본공연 8: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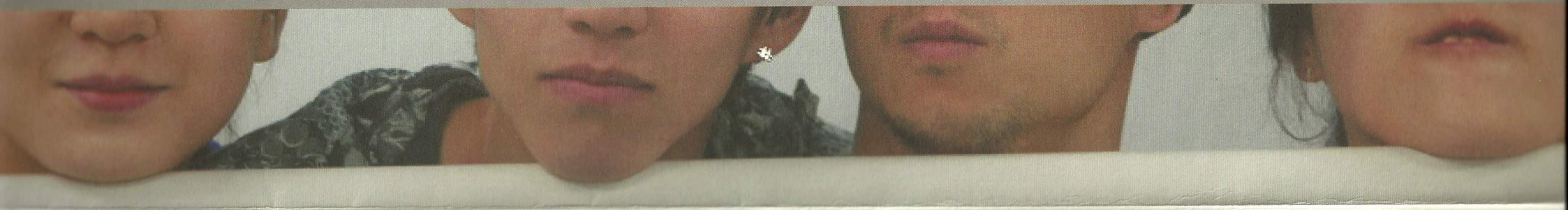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작용을 가하거나 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대상에게 작용을 가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이다. 능동적인 행위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는 대상을 자신에게 완전하게 복속시키는 것이다. 혼란 말로 대상을 먹어버리는 상태를 일컫는다. 반대로 수동적 행위의 극단은 상대에게 먹히는 것이다. 먹고 먹히는 관계, 능동과 수동의 관계는 이 세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 차원에서 작동한다. 야생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약육강식의 관계 안에서, 문명 세계에서 전쟁 속에, 그리고 인간과 기술 사이, 남성과 여성 사이 등등,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미시세계와 인간과 시간의 관계에서도 먹고 먹히는 관계는 성립한다.

시간 속에서 수동적으로 사라지는 인간, 곧 시간에 먹히는 인간이 수동적 주체라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곧 시간을 머금은 인간은 능동적 주체이다. 그러나 죽음과 삶의 관계가 그렇듯, 사라짐은 살아남의 배후일 뿐이니, 능동과 수동, 먹고 먹히는 관계는 불연속적 단절을 이루는 두 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면적 대립이나 일방적 의존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두 차원이 이중 교호적 순환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생성과 창조의 운동을 반복하는 관계일 뿐이다.

1. 인간과 시간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 죽음-삶-죽음
2. 미시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
3. 문명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전쟁, 기술의 역운 등)
4. 남성과 여성의 사이 등 사회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
5. 일상적 차원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
6.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에서 작동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
7. 야생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약육강식의 관계** 삶-죽음-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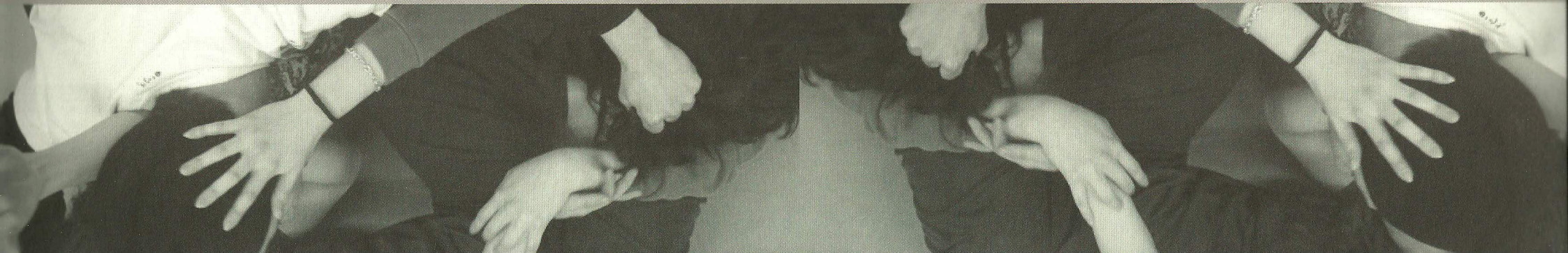


서서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려 합니다.  
 눈부심으로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연분홍이 춤으로 뜨거운 연분을 맺은 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맘으로, 가슴으로 세상을 받아들인  
 연분홍은 춤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그 시공간 속에서  
 춤과 함께 삶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입렁이고, 흔들렸지만  
 춤에 대한 열정,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림을 받아들이고, 가려왔으며  
 마르지 않는 춤-신명으로, 춤-길을 찾아 헤매다  
 지금-여기에 섰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불 같은 도전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오늘 우리는 깊은 바다와 같이 어떤 풍랑에도 미동지 않으며,  
 더불어 세상과, 만물과 소통할 수 있는 몸-춤 찾기 위해,  
 깊은 고민으로 자신에게 타협하지 않으며,  
 목적 없는 몸의 여정, 그 춤-길을 찾아 떠나는 노력도  
 재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춤에서 길을 찾는 연분홍의 방향을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술감독 Art Director  
**임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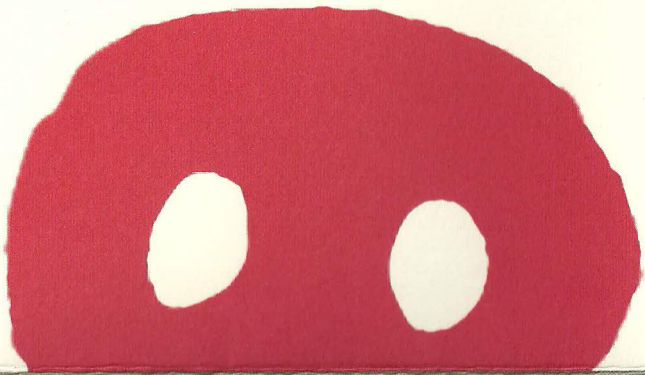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을 먹고살면서,  
그 자연에서 자연을 파괴하다 결국 자연에 의해 죽어간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생긴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 욕심이다!!

너무나 선하고 고운 미소로 가장한 채 서로의 심장에 칼을 찌고  
말라비틀어진 가슴에 못을 박고  
진흙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진흙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안무 Choreographer

### 조희정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수로  
연분 홍 상임단원  
필라델피아 댄스페스티벌 'Feet 2000' 출연  
부산무용콩쿨 동상 수상  
제6회 신인춤 젊고 푸른 춤꾼 '행복중후군' 안무  
부산현대무용단 기획공연 '흔들리는 법' 안무  
제20회 국제현대무용제 출연  
제22회 서울무용제 출연  
제21회 국제현대무용제 출연  
국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동동 2030' 출연  
목포우수마당국제전 '그령그령' 안무 및 출연

### 주요 안무작

“행복중후군” “흔들리는 법” “하이힐을 신고 산을 넘다”  
“Waiting for...” “하늘은 파랗다”  
“그령그령” “떡겨나, 떡히겨나”

출연자 Dancer



이용진

2010 협력의시작 "유쾌한 헤어집"출연  
2009 RedStep "키스" 출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중



김현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2008 연분홍 "그령그령" 2009 "그 골목이 품고 있는 것들" 출연  
2008 임현미의 춤 "공명" 2009 "물밑소리" 출연  
부산무용콩쿨 금상 수상



최규식

2009 대학무용제 "카르멘" 출연  
바다 정기공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출연  
홍순미 모던댄스니케이션 "pierrot sorrow" 출연



남유진

2008 부산대학무용제 출연  
2009 광안리 해변 축제 출연

연분 홍 (전남)